

Contents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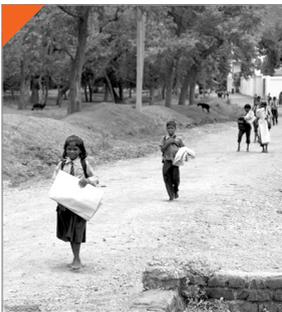
해외소식

- 05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희망과 함께 돌아가는 차르카, 다 함께 돌려보아요 | 박성재
- 10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집으로 가는 길, 다리가 끊겼다면? | 이재곤
- 13 **쭈리읍수어, 캄보디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태훈
- 17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꿈만 같은 이야기 | 오성근
- 20 **밍글라바, 미얀마**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 김성현



국내소식

- 24 **함께 나누는 사랑**
노원구청과 함께한 사랑의 두유전달식 |곽수진
JTS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 | 배혜정
JTS 서포터즈 2기를 소개합니다 | 윤경빈
- 32 **함께하는 사람들**
류정훈 · 이주희 부부의 후원 이야기 | 권민성
신규 해외활동가를 소개합니다 | 배혜정 · 김희자



활동터소식

- 37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 / 인도 / 필리핀 / 캄보디아 /
미얀마 / 해외 파견 자원활동가
- 42 **후원인의 소리**
- 43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넬날 2013. 9. 2 퍼넬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넬터 JTS
도운이 김지은, 양은지, 김옥희, 최기진, 서민정, 이미경, 최양희, 신인환, 곽수진, 권민성, 배혜정, 윤경빈, 박영일, 안미진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전화 (02)587-8756 /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or.kr 홈페이지 www.jts.or.kr

/ 여는 글

30도를 넘는 무더위도 한풀 누그러지고, 가을의 전령이 벌써 도착한 양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난여름 유난히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JTS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지구 저편 어딘가에서 굶주리거나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있을 아이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우선 캄보디아 JTS는 라따나끼리주(州)에서 학교 건축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현장 사정으로 학교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후원자들의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이제 인도 JTS의 '살아있는 전설', '아눔 브라다' 김재령 활동가가 합류한 만큼 학교가 일사천리로 지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썬! 캄보디아 JTS 김재령 활동가의 '항해일지'도 조심스럽게 공개해볼까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장마피해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과 미얀마 짜웅공 마을에서는 물난리로 끊긴 다리를 복구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복구한 다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의 눈길에서 벗어난 이웃들이 있는데요, 한국 JTS는 지난 7월 서울시 노원구청 복지정책과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사랑의 두유'를 전달했습니다. 그 밖에도 JTS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하여 '세계시민교육 서포터즈' 첫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새로운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들이 각 나라 사업장에서 활약할 예정인데요, 이번호 소식지에서 그분들의 각오와 다짐도 잠시 들여볼까 합니다.

편집부



희망과 함께 돌아가는 차르카,
다 함께 돌려보아요!

인도 JTS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동게스와리 지역 주민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차르카"를 이용한 옷감 짜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정신을 잇는 단체 "그람 니르만 만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마을 아주머니들의 희망 만들기.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박성재 활동가

차르카가 무엇인가요?

본격적인 사업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 쉬운 이해를 위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도 동게스와리에 도입된 차르카 사업은 인도의 성인 마하트마 간디가 스와라지 운동의 일환으로 직접 개발한 "차르카"라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원자재를 이용하여 실을 뽑아내며 옷감을 짜는 차르카는 일종의 물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 개발, 유기농 채소, 친환경 비누 생산 및 판매 등 다각도에서 녹색지구(Green Earth)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어떤 연료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수작업으로 생산 가능한 100% 친환경 기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동하는 방식도 간단하여 2주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들의 팔운동에 좋은 기계입니다.

차르카 사업의 파트너, '그람 니르만 만달'

그람 니르만 만달은 1954년 락 나안 자이프라카시에 의해 설립되어 지금까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간디의 정신(Village Swaraj)을 이어오고 있는 봉사 단체입니다. '진실을 기초하여 착취를 없애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이고 독립적인, 그리고 비폭력적이고 자립적인 민주주의 마을을 건설한다'는 이들의 비전에는 간디의 정신 그대로가 아름답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농법 개발, 유기농 채소, 친환경 비누 생산 및 판매 등 다각도에서 녹색지구(Green Earth)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나와다 지방을 기점으로 하여 인도 전역 곳곳의 가난한 마을에 차르카 공장을 세워 부녀자들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빈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인도JTS 차르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수자타 아카데미가 위치한 동게스와리 마을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에 인도JTS의 최동호 활동가가 "그람 니르만 만달 소사이어티"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JTS의 이념과 사업 방식을 설명한 뒤, 동게스와리 마을 주민들에게도 차르카를 통해 희망을 보여주는기를 부탁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그람 만달의 총책임을 맡고 계신 연로하신 할아버님께서 "세계에 빛이 되어라(Be light of the world)"는 말씀과 함께 최동호 활동가의 뺨을 한 대 가볍게 친 다음 차를 타고 사라지신 뒤로, 인도JTS 차르카는 그람만달로부터 차르카 기계와 원자재, 인력까지 전부 무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람만달에 감사드립니다.

동게스와리 부녀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올해 4월, 25명의 마을 부녀자를 이끌고 차르카 공장의 본거지인 나와다 그람만달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곧이어 7월, 차르카 25대가 들어왔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우리 어머니들의 실 짓는 솜씨도 제법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오늘, 인도JTS 차르카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들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각자 기계를 돌려 뽑은 실의 무게만큼 계산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동게스와리 부녀자들이 팔운동을 더욱 많이 해서 많은 소득을 창출하기를 희망해봅니다.

차르카로 자아가는 마을자치, 희망찬 미래

저희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차르카 공장에서 제작한 실과 옷감을 이용하여 재봉반 어머니들이 유치원 및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의 교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도인들이 많이 쓰는 감치(햇볕을 가리기 위해 몸에 두르는 얇은 천), 솔(겨울철 여성들의 목도리 용도) 등을 제작하여 동게스와리 마을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현금이 도시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동게스와리 안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자체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마을사람들이 서로 더 잘 살게 되는 구조를 그려봅니다.



차르카로 직접 옷을 지어 입었던 간디

그람만달의 설립자 니나안의 동상 앞에서

“ 전통적인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이며 중요한 노동력이기도 한 부녀자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집을 비우고 출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실함과 극복만이 살길이다

차르카 사업이 무지갯빛으로 가득 찬 것만은 아닙니다. 운영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교육
생들의 무단결석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두 매일 나오기로 마음먹었지만, 전통적인 가정의 아내이자 어
머니이며 중요한 노동력이기도 한 부녀자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집을 비우고 출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
니다. 그렇다고 무단결석자들에게 제재를 가한다거나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출석에 대한 동기
부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인도의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초반에는 불성실하다고 여겨 이해가지 않았던 인도인들의 무단
결석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조차 앓아갈 정도의 극한의 더위 속에서 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출석하
도록 돕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딛고 차르카 공장에 성실하게 출근하게 되면, 보다 나은 삶으로 향하는
계단 위로 한 발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일을 마칠 때 어머니들께 “로즈로즈 아나 짜히에(꼭
매일 나오셔야 해요)”라는 당부의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차르카를 통한 작은 소망

최동호 활동가와 함께 차르카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저는 주로 옆
에서 지켜보는 일을 하였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인도의 위대한 성인이라 모셔
지는 간디의 정신을 실현하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
다. 인도의 다른 NGO와 협력하며 그들은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조금이나마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소득창출을 통해 돈을 버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람 니르만 만달의
정신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이고 독립적인 마을’이 생겨나야 하고, 그
럴 때 이 작은 마을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여기 이 마을, 이곳부터가 희망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일을 하면서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해져서, 동게스와리를
본보기로 삼아 15개 마을에 또 다른 공장들이 들어서서 머지않아 동게스와리
가 불교의 성지일 뿐 아니라 간디의 정신까지 이어지는 행복한 곳이 되길 희망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세계의 빛이 되시길...



그람만달에서 파견나오신 기술자 선생님

수자타아카데미 맨윗층에
임시로 자리한 차르카 공장



차르카 공장과 협력하게 될 재봉반 학생들

차르카반 어머니들의 단체사진

기둥을 세울곳에 돌을 뽑아내는 중



집으로 가는 길, 다리가 끊겼다면?

-태풍으로 끊어진 알라원 마을의 다리를 잇는 사람들

시골이 아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다리를 몇 번씩은 건넌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강에도 무수한 다리들이 있지만, 그 다리가 있어서 고마움을 느낀 적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리가 끊어졌다면? 그냥 돌아서 다른 다리로 가면 될까?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오지 마을에는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딱 하나 밖에 없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이재곤 활동가

필리핀 JTS 트레이닝 센터 근처에 "알라원"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곳 센터도 시내로 가려면 차로 1시간 반은 가야 되는 외진 곳에 있는데, 알라원이라는 곳은 여기서 도보로 3시간은 더 가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마을이다. 주민 대부분은 산속의 커피를 따서 팔거나 고구마 같은 작물로 살아가고, 몇몇은 마을로 내려와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JTS는 과거 그 마을에 학교와 다리를 지원해 준 적이 있다. 그런데 지난 태풍 때 다리 근처의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다리를 덮쳐 다리가 끊어졌다는 소식을 주민들부터 전해 들었다. 현장을 방문해 보니, 주민들의 말대로 큰 나무로 인해 다리와 다리를 연결한 와이어가 끊기고 한쪽의 다리 기둥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수많은 논의를 거쳐 알라원 다리를 재건축하기로 결정하였고, 기울어진 다리 아래쪽 기둥을 새로 세워서 다리를 다시 연결하기로 결정하고 4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중간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설계부터 다시 진행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7월이 지난 지금은 무너진 한쪽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알라원 다리 공사

이번 알라원 다리 공사는 JTS의 다른 사업들과는 조금 달랐다. 일단 예산부터 마닐라 정토회에서 모은 기부금으로 시작했고, JTS 센터와의 거리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가까웠기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주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다리는 기술자를 고용해서 쉽게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을사람들의 지원과 협력이 없이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공사시작 전부터 공사에 참여할 주민을 팀을 결성하고, 체육대회를 열어 주민들의 단합을 다지는 장을 마련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런 의도가 통했는지 알라원 주민들은 그냥 걷기도 힘든 길을 걸어서 시멘트와 철근 같은 자재를

가지러 나오곤 했다. 마을 부녀자들도 공사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 채 16살도 안된 아이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걸 말려야 할 정도였다.

3박4일 방문을 끝으로 다리 기둥까지 완성

알라원 다리 공사를 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건 뭐니 뭐니 해도 2박3일과 3박4일씩 마을과 다리건축 현장에서 숙박을 하면서 공사에 참여했던 시간이다. 센터에서 출발할 때에는 기둥을 세워 양생)하기 전까지는 마을에서 내려올 생각도 말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3박 4일의 공사기간 동안에는 태풍이 와서 오전 11시만 되도 비가 내리기 일쑤였다. 나는 속으로 '목요일 전에는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하며 구름도 원망해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오히려 작업시작 시간인 7시보다 더 당겨서 하자고 나에게 제의를 해서 30분 정도 공사를 일찍 시작하기도 했다.



무너진 다리를 새롭게 짓고 있는 주민들



네모난 철근을 넣어 기반을 만든다.



알라원 다리건축 단체사진



현장을 방문중인 이원주 대표님

땅을 파고 모래와 자갈을 나르는 일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건 시멘트 작업이었다. 군대에서는 삽질 좀 하면 밥이라도 많이 줬지만, 여기 밥은 진짜 쌀 뿐이고, 반찬은 근처 야채를 뽑아 소금국을 끓이거나 어떤 날은 소금에 절인 멸치보다 약간 큰 마른생선 몇

마리뿐이었다. 이런 것들을 먹고 일하려니 너무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지지 않는 사람이 한명 있었으니, 바로 마을리더 Arnel. 역시 리더는 뭔가 다르긴 다르다.

고산지대라서 그런지 오후 1시인데도 추웠다. 나무를 여기저기서 잘라와 잠자리 앞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잤는데, 마을리더가 준 고구마도 모닥불에 구워 먹었다. 현지스텝이 고구마를 자주 태워먹으니까 마을 주민인 Fredo 아저씨가 고구마 잘 굽는 강의를 해주었는데, 불 근처에서 뒤집어 주면 된다고 시범을 보여준다. 알라원은 고산지대에 위치해서 저녁마다 집 한가운데에 모닥불을 지피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는다고 한다.

기둥을 세워 *양생기간이 시작되고 이원주 필리핀 JTS 대표님께서 현장을 방문을 하셨는데, 다리가 지어진 것을 보시고 “여물게 잘 지었다”고 평가하셨다. 그 당시에도 임시로 놓은 다리가 태풍으로 인해 계속 부러져서, 아예 강한 물살을 그냥 헤치고 건너는 상황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와이어를 연결하고 싶었지만, 튼튼한 다리를 짓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참는 시간도 필요했다. 이제 양생기간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 지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는 일만 남은 셈이다.

다리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사는 9월 즈음에 다시 시작 될 것이다. 그 때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된다. 딱 10일 정도의 공사기간이 남았는데, 그 때는 며칠이나 숙박을 해야 공사를 마치고 마을에서 내려올 수 있을지 사뭇 걱정 반, 기대 반이다. 어서 공사를 재개하고 싶은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센터 근처에는 계속 비만 죽죽 내린다.

* 양생 :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열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캄보디아 라타나끼리 학교건축 기공식

한국에 장맛비가 내리던 지난 7월, 우기를 맞은 캄보디아에도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몇 년이나 끌어 온 캄보디아 학교건축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건축 기공식을 진행한 활동가의 소감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함께하고 글쓴이 캄보디아 JTS - 문태훈 활동가

따농 기공식에서 큰 절을 올리고 있는 활동가



라타나끼리에 비가 많이 옵니다. 지난 두 주 동안은 내내 흐렸습니다. 날이 갠으니 우선 빨래가 잘 마르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나면 사방에 진흙탕이 많아져서 옷은 자주 더러워지는데, 빨래를 해도 잘 마르지 않으니 늘 꼬팍합니다.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우기에 오후 2시쯤 비가 쏟아지다가도 감쪽같이 그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국의 장마처럼 낮은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습니다. 날마다 내리는 비 때문에 시골길은 곳곳에 웅덩이가 파이고 진창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마을은 시내에서 한 시간 반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번듯한 길이 놓여서 차가 다니기 편했었는데, 비가 오고 나서는 길이 미끄러워서 사업장 까지 들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학교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자재상도 비가 오면 자재운송을 못한다고 하니, 자재공급을 맡은 제 처지에서는 조바심이 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지난 7월 28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부정비리로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야당 지지자들 중 일부는 프놈펜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8월 초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기술자가 라타나끼리까지 제때에 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 고향에서 이곳으로 오려면 프놈펜을 거쳐야 되는데 프놈펜에 큰 시위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을사람들과 기공식 날짜를 잡아놓고 음식까지 준비해두었는데 이렇게 난감할 데가 없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농사일 역시 진행 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논밭에 나가고 마을에는 남은 사람이 몇 없습니다. 기술자와 계약을 마치고 기공식 준비를 위해 마을에 들렀는데, 이장님과 부이장님이 공사 시작을 미룰

따농 기공식에 참석한 주민과 어린이들



수 있겠냐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농사 일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부터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일을 나눠서 하면 실제로 공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많지 않다.” 이렇게 설득을 하니 또 알겠다고 수공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언동미어지역 “따농”과 “인” 마을에서 마침내 학교 기공식을 치렀습니다. 여러 곡절이 있어 헛수로 4년이나 공사를 못하고 있었던 두 마을입니다. 공사 시작이 늦은 만큼 올해에는 꼭 학교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도 또 여러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기다리던 기공식 날, 이장님의 당부말씀이 있고 캄보디아JTS에서는 김재령 활동가가 대표로 나와, 전통에 따라 마을조상과, 주민들과, 아이들과, 공사도구와 하늘과 땅에게 감사하다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JTS 김재령 활동가의 향해일지 - 향해 395일째

PAGE
DATE

학교 공사가 중단되었던 강 건너 마을은 지금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몸이 부실해 보이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18살짜리 청소년 노동자가 있다. 작고 어리고 나이가 어려서 내가 관심어린 질문을 몇 개 던지다가, “혹시 글자와 숫자는 아느냐?” 나의 이 질문에 어린 노동자가 움츠려든다. 그가 너무 몸을 움츠려서 “책을 사줄 테니 글자와 숫자 공부를 하겠느냐?” 그는 “예”라고 대답을 하며 움츠린 몸을 편다.

나는 그의 편안한 미소를 확인하고 “문자와 숫자를 모르면 집을 제대로 못 지으니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문자와 숫자도 머릿속에 짓거라.” 그리고 노동자들 밥을 해주는 아주머니에게 부탁했다. “저 친구에게는 특히 밥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니 뼈만 잡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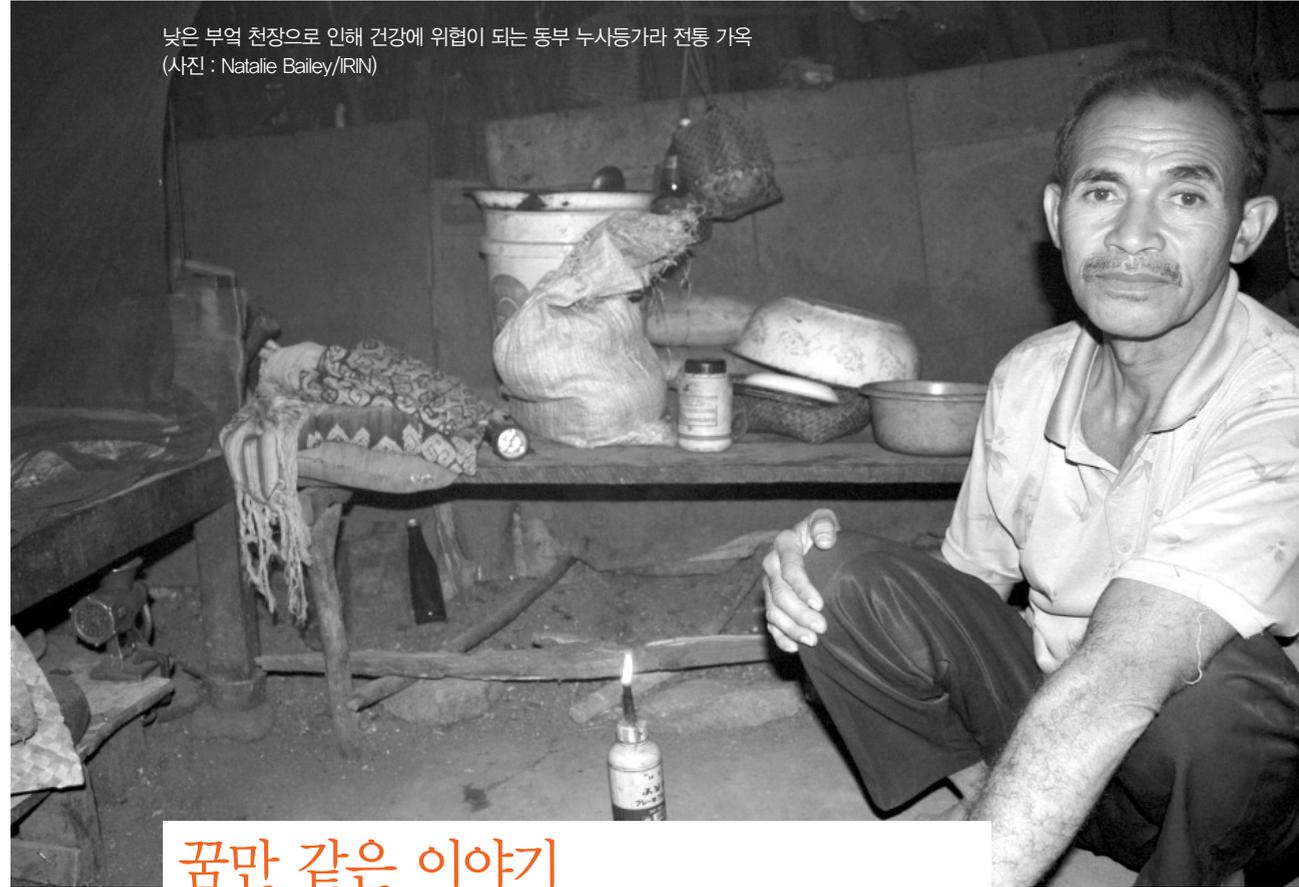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 간혹 나를 껴안는 사람이 있다. 나를 껴안고 나서는 대개 “어머! 살 좀 쪼아졌네. 뼈밖에 없네.” 나는 뼈밖에 없는 느낌을 잘 몰랐는데 어린 노동자를 통해서 그 느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이 어린 노동자는 나랑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한 인도의 불가촉천민 노동자를 많이 닮았다.

인도나 캄보디아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농사지를 땅도 없는 사람들이 주로 건축 노동을 한다. 글자를 모른다고 불행하지는 않지만 당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눅이 드는 경우가 많다. 양민이나 글자를 아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존중은커녕 때론 무시 받는 경우도 많다. 나는 글자와 숫자를 모르는 천민 노동자에게 최소한 글자와 숫자를 주고 싶었다. “글자와 숫자를 모르니 설계도를 못 보는 건 양반이고, 건축의 기본인 줄자에 적힌 숫자도 모르니 어떻게 집을 짓겠어? 글자와 숫자를 공부합시다.”

노동자들은 글자와 숫자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쉽게 터득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월급을 받을 때 지장을 안 찍고 서명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과 돈을 세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은 지금도 나를 환하게 웃음 짓게 한다. 캄보디아의 어린 노동자가 내가 준 책과 노트로 공부를 하였던지, 오늘 돌아오려고 하는데 노트에 자기 이름 석 자를 또박또박하게 쓴다. 그의 모습에 뿌듯하고 당당함이 묻어있고 주변의 노동자들도 함께 기뻐한다. 한 노동자가 “이를 만에 자기 이름을 쓰게 되었어요.” 이 말에 모두가 박수를 치며 이 어린 노동자를 축하해주었다.

*아빠 까바르는 'How are you?'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입니다.

낮은 부엌 천장으로 인해 건강에 위협이 되는 동부 누사등가라 전통 가옥
(사진 : Natalie Bailey/IRIN)



꿈만 같은 이야기 - 인도네시아 JTS의 사업 방향

영원할 것만 같던 라마단(이슬람 금식월)도 끝나고 르바란(이슬람 명절)도 마침내 끝났습니다. 연중 행사와도 같은 라마단은 비 무슬림인 우리 활동가들에게 여간 고역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올해도 잘 넘겼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JTS의 다음 발걸음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네시아 JTS - 오성근 활동가

인도네시아 JTS 신규 사업 후보 7개 지역



지난 3년간의 서부 수마트라주 아감군 지진 피해 복구 프로젝트를 모두 마치고, 이제는 여러 여건상 이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반도 크기에 9배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로, 5개의 큰 섬과 6,000여개의 유인도를 포함, 총 14,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이다. 또한 약 2억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다. 이 광활한 나라에서 JTS가 가진 비전과 사업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의 인구센서스나 유니세프등 유엔 기구에서 발간한 빈곤관련 조사자료 등, 객관적이며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였고, 그 중 지역의 “아동 빈곤율”과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초등교육 중도 탈락률”의 세 가지 지표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열약하다고 판단되는 7개 Kabupaten를 선정했다. “Kabupaten”은 한국으로 치면 2~3개 군을 묶어놓은 것과 같은 규모의 행정단위로, 한국의 군(郡)보다는 크고 도(道)보다 작은 행정단위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JTS는 현재 7개의 후보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계획 중이다.

지역조사(Assessment)는 ①사업 아이디어 구상 ②이해관계자와의 만남 ③지역조사 계획 수립 ④지역조사 실시 ⑤지역조사 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사전 조사 및 기획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리 단체가 가진 비전과 사업원칙에 부합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국가개발전략에도 부합하는 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행 할 예정이다. 또한, 최소 10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 할 예정이며, 그 안에 있는 프로젝트는 5년 주기로 생각하고 있다.

사업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거라 예상되는 첫 5년 주기 이후에는 현지 활동가들을 중점적으로 양성하여 8년차 즈음에는 책임자급의 활동가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고, 10년차 이후엔 현지 활동가들에게 이양하고 JTS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기본 골격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내용면에서는 현재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사방승가(四方僧伽)운동”과 같이 ‘자립적이고 순환적인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의 주인의식 고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외부인이 모든 것을 사업장에 제공한다면, 그 마을의 개발은 외부인의 것이 되고 현지인은 “방관자”가 되어, 외부인이 떠나면 사업은 이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현지인들이 마을 개발의 주인의식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에 교육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필요로 학교를 짓는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주민들과 지역 정부 관계자, 건축업자, JTS 활동가 등이 모여 협의체를 만들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명확히 한 상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협업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며 협의 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만들어 줌으로서 의식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마을리더 양성과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혀서 마을에 들어가 산다고 하여도 우리는 외지인일 수밖에 없으며, 마을의 일에 대해 마을리더의 안목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리더 발굴 및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많은 지역 NGO와 국제 NGO, 정부기관 등 많은 단체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 각각은 각자 특화된 분야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울 수 있으며, 상호 학습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된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다. 또한 이 네트워킹에 마을리더나 현지인 활동가들이 함께한다면, 우리가 철수한 이후에도 그 네트워킹을 근간으로 단단하게 협력하여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까지 참 꿈만 같은 이야기였다. 결국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현실 세계에 적용하느냐’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다.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거기에 어떻게 녹여내느냐는 결국 온전히 현장 활동가들의 몫이 된다. 느리더라도 조금하게 굴지 말고, 보이지 않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답답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활동하는 기간에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전혀 보지 못하더라도,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민들의 삶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한편, 전문적인 개발과 구호 이론으로 무장하고 도구와 방법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JTS가 가진 강점들과 활동가로서의 내가 가진 강점들, 그리고 주민들이 가진 강점들이 있다. 그 강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하며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간다면, 이 꿈만 같은 이야기도 언젠가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삐예지 마을 다리 준공식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 짜웅공 타운십 다리 준공식

다리는 단순히 두 마을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다. 다리는 두 마을 사람들 간의 마음을 서로 이어주기도 한다. 준공식 때 JTS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함께하고 글쓴이 미얀마 JTS - 김성현 활동가

완공식 행사 공연



작년 8월, 짜웅공 타운십(Kyaunggon Township)의 거의 모든 마을들이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당시 가옥의 지붕 처마 밑까지 차올랐던 강물은 농경지와 가옥 등, 마을의 많은 것들을 파괴했다. 짜웅공은 비단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우기 때만 되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침수가 계속되는 곳이다. 미얀마 JTS는 짜웅공의 여러 마을들 중에서도 오지에 위치해 있어 개발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해 마을들에 식량지원 사업을 펼쳤다. 그리고 연이어 긴급복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마을에서 주민회의를 열었다. 당시 짜웅공 주민들이 JTS와 같이 하고 싶었던 사업은 하나 같이 '다리' 건축이었다. 홍수와 침수에도 부서지지 않을 튼튼한 다리를 주민들은 원했다. 그리고 그 다리들이 마침내 다 지어져, 어느덧 준공식 날짜가 다가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나는 준공식을 앞두고 각 마을 이장들과 주민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었다. 준공식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마시라고, 멋있고 화려한 준공식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다. 우리가 함께 지은 멋있는 다리가 딱하니 있으니, 레이스나 리본으로 준공식이 열릴 마을 회관을 꾸미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드렸다. 또 다리를 함께 지었던 주민들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준다면 현수막도 따로 필요 없다고 했다. 음식도 비싼 돈 들여서 진수성찬을 준비하지 말고, 마을에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과 물만 내 오시면 된다 했더니, 듣다들 다 더는 못 듣겠다는 듯, 마을 어른들이 역정을 냈다. 큰돈을 쓴 큰 사업의 준공식이고, 더군다나 JTS의 이사장님과 대표님들이 멀리 한국에서 오시는데 그럴 수 없다며 정색을 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으로 알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JTS의 원칙이고, 무

쭤차웅 다리 준공식



엇보다 이사장님이나 대표님께서 지나치게 화려한 준공식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까 싫어하신다 했더니, 주민들이 고민하는 표정이 되었다. 불필요하고 부담되는 지출은 하지 마시고 마을 잔치 정도로 생각하고 준비하시라 했다. 그렇게 준공식 준비를 마무리 하면서 옛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왔다.

돌이켜 보면, 다리 건축 사업이 순탄치 만은 않았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바랐던 다리이지만,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다. JTS의 사업 원칙에 대한 주민들 간의 오해로 불화가 생기기도 했었고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고 소극적으로 굴 때도 많았다. 일반 건물과 달리 다리는 더 많은 전문 건축 기술을 요하는데, 기술자와 주민들 간에 오해가 생겨 공사를 중단할 뻔 했던 적도 있었다. 크든 작든 사업장 마을에서 JTS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일단 활동가가 사업장에 찾아가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더 커지고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튿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현지 스텝을 이끌고 짜웅공 사업장으로 향한 적도 종종 있었다. 때로는 나와 미얀마 자원봉사자 간 오해가 불거진 적도 있었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적도 많았다.

준공식 당일 마을로 향하는 뱃길. 귀가 멍멍할 만큼 시끄러운 나룻배 엔진 소리에도 나와 현지 스텝들은 사업 마무리와 준공식 준비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엔진 소리 너머로 팽과리 소리, 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우리가 탄 배가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사람들의 추임새 소리, 장단을 맞추는 박수소리가 더 힘차게 들려 왔다. 뱃사공 어르신은 대나무로 엮어 만든 흔한 나루터조차 없는 강어귀에 뱃머리를 갖다 댔다. 미얀마에 파견 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나룻배를 타고 내릴 때 뒤통거리는 내 모습이 괜히 그날따라 더 겸연쩍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워, 진흙탕 경사로를 미끄러지듯 올라갔다. 그날은 특별히 한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온다고 주민들이 진흙바닥에 쌀겨를 꼼꼼히도 뿌려 놓았다. 가파른 경사로도 삼으로 깔고 밟아서 흙 계단을 만들어 놓은 세심한 마음이 참 고마웠다.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다르자 털옷을 입고 사자탈을 쓴 채 사자춤을 추는 이가 보였다. 그 주위를 흥에 겨운 주민들이 둘러서서 전통악기를 연주하고 추임새를 넣고 있었다. 우리를 반기는 춤사위가 한 판 끝나자 무거운

탄더빈 마을



사자탈을 벗고 땀을 쏟아내는 이는 이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옛된 소년이었다. 소년은 잠깐 물을 마시더니 다시 탈을 쓰고 탈춤을 추면서 우리 일행을 다리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다리 건축을 위해 임시로 만든 대나무 다리는 역시나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가고 없었다. 그 옆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새 다리가 너무 믿음직해 보였다. 새로 만든 다리 위에 우르르 몰려 선 주민들이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걸 보니,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가슴 벅찬 느낌이 코끝까지 찡하게 밀려 왔다. 그렇게 다리가 완성되고, 프로젝트는 끝을 향해 달렸다.

마을 주민들, 현지 JTS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다리였다. 다리가 다 지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또 안 올 줄 알았는지 마을 주민들은 준공식 행사가 끝나자마자 연신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다. 다음에 또 와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주민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다른 마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지나가다 들리라고 손을 잡고 놓아주질 않는다. 주민들과 마주 잡은 손에서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다음에는 좀 더 주민들 속

에 파고들어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다리는 짜웅공의 마을과 마을을 이었고, 또 나와 미얀마를 이어주었다.



노원구청과 함께한 사랑의 두유전달식

지난 7월, 쏟아지는 장맛비를 뚫고 JTS의 사랑의 두유 1,132박스, 총 13,380리터의 두유가 노원구청에 배달되었습니다. 이번 사랑의 두유 나눔은 '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자랍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정책에 힘쓴 노원구청과 협력하여, 서울시에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은 노원구의 1,413가구와 13개 지역아동센터에 두유를 전달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한국 JTS - 박수진 활동가



두유를 배송하는 날, 퍼붓는 장맛비에 운송 기사님과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실무담당자님, 각 지역 주민 센터 담당자님들께서 옷이 다 젖어가며 고생하시는 중에도, 사랑의 두유기부가 노원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준 JTS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어느 때보다 마음은 훈훈했던 사업이었습니다.

JTS의 사랑의 두유 전달식은 JTS 김기진 공동대표님, 노원구청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우리나라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은 조손가정 및 미혼모, 미혼부 가정 등 어린이와 여성,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많아 현재 사회적 대책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부모가족 지원제도, 조손가정 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 노령연금제도, 차상위계층제도 등의 각종 사회보장 법령은 취약계층에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대책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JTS와 노원구청의 실무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7월 29일 노원구청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 맑게 갠 하늘만큼이나 모두 밝은 표정으로 전달식에 참여해주셔서 마음까지 뽕뽕송송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랑의 두유 기부는 어려운 이웃을 최우선으로 돕는 JTS의 사업원칙에 적합한 지원 대상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을 선정하여, 취약계층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과 단체에 JTS의 도움이 전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노원구청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은 '노원구에 법륜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즉문즉설 강연을 해주시고, 이번 두유 기부도 노원구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 노원구청에도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뜻을 전하시며 지금까지 JTS가 수행해온 국내외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JTS의 김기진 공동대표께서 2014년 인도의 수자타 아카데미 20주년과 더불어 해외 봉사활동에 힘쓰는 JTS의 활동소식과 열악한 북한 어린이들의 환경을 설명해주셔서 마음을 내어 서로 돕는 '봉사의' 의미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JTS의 사랑의 두유가 대상 가정에 직접 전해질 수 있도록 노원구청 복지정책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노원구청에서는 구체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두유를 정확한 수량으로 배분, 각 지역의 주민 센터에 나누어 배송하였습니다.

이번에 전해진 JTS 사랑의 두유가 더운 여름,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자라게 하는 희망 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두유 기부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JTS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 수료식



거리모금에 참가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 참가자들



JTS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

7월 21일 일요일, 제1회 JTS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에 100명에 가까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가운데, 37명이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모두 참석하여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높았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미처 함께하지 못했던 여러분께도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한국 JTS - 배혜정 활동가

세계시민교육이란?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와 내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빈곤, 질병, 지구온난화, 불평등과 같은 지구촌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시민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JTS에서도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를 개설하였습니다. JTS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에서는 이러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이론교육을 진행함과 더불어, 거리모금에 참여하는 실습과정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배우고 느낀 것들을 직접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시간

이 날 교육에서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빈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딱딱한 수업이 되지 않도록 OX 퀴즈를 준비했는데,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음에도 만점자가 네 명이나 나올 정도로 모두들 열의 있게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파키스탄의 아동 노동을 다룬 영상을 시청하며, 아동 노동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까지 엄마 손에

이끌려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 참가자들의 눈빛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 시민사회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기아·질병·문맹 퇴치를 위한 구호 및 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JTS도 그러한 단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나도 힘을 보탬 수 있다는 것. 그러한 마음을 내니 무거워졌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론 교육이 끝나고 거리모금 실습이 이어졌습니다. 거리에서 모금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금함을 들고 길을 지나는 사람에게 기부를 부탁하는 행위는 결코 과해서도, 그렇다고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동이라는 당당함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아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당당할 수 있게 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꾸 뒤로 주춤하게 되었다. 기아, 빈곤 상태를 알수록 마음이 무겁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한 참가자분이 소감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참가자들이 이분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 누구든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 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자 외면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웃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러면 또다시 마음이 아프고 불편할 것입니다.

이번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를 통해 처음으로 37명의 수료생이 나왔고, 그 중 절반 이상인 20명이 교육에 이어 NGO 활동 실천 과정인 “JTS 서포터즈”에 참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시간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JTS 소개를 듣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중인 2기 서포터즈



JTS 서포터즈 2기를 소개합니다.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JTS 서포터즈 2기의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천둥과 비를 동반한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스무 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 반가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한국 JTS - 윤경빈 활동가

양평 고등학교 정영수 선생님의 나비 프로젝트 소개



활동목표를 정하기 위한 모둠 토론중인 서포터즈 여러분



JTS 서포터즈?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와 나의 상호연관성”을 알아보고, 빈곤, 불평등,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하고자 하는 실천과정입니다. 3회에 걸친 심화교육과 2회 거리모금, 직접 기획한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기금을 실제로 JTS 해외사업장에 지원하게 됩니다.

JTS 서포터즈 2기 모임의 첫 순서는 JTS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아픈 이들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는 배움을 제공하는 활동이념을 바탕으로 국내를 비롯해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등의 해외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뤄지는 JTS의 활동들을 알아보며, 지역주민과 JTS 간의 협동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외 사업장 사진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보았을 때 눈가가 촉촉해지는 분들도 있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합쳐 주변의 것들을 조

금씩 변화해나가는 해외 현장의 모습들은 서포터즈 분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간간히 유머와 퀴즈가 곁들여진 JTS 소개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서포터즈 교육 기획팀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분들 앞에는 뇌 그림이 그려진 종이 한 장이 놓여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뇌 구조 그리기였는데요, 자신의 뇌 구조를 그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를 표현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들을 적어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해보려 합니다. 치킨이 먹고 싶어 ‘치킨’을 적어둔 분이 있었는가 하면 ‘친구와 영화 볼 생각에 설렌다’, ‘교육장에 있는 에어컨이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이 재미있을까?’와 같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뇌 구조 그리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지고 이어진 순서는 캄보디아 나비 프로젝트를 이끌어주신 정영수 선생님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양평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정영수 선생님은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학교 건축 프로젝트에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교실 한 칸을 완성해 나가는 나비 프로젝트의 담당자였습니다. ‘학생들과 좋은 일들을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JTS의 학교 건축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를 돕기 위해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교실 한 칸 건축에 필요한 1,000만원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비용은 동아리 활동 또는 거리모금, 바자회 수익금을 통해 모았습니다. 양평중학교를 포함한 두 학교가 협력해 모은 수익금으로 교실 한 칸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겨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한 경험을 나누었던 이 시간은 이번 서포터즈 2기 활동가들이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서포터즈 2기의 활동목표 정하기’였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 모인 서포터

즈 2기는 3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품고 문구류, 교과서 또는 책걸상 지원과 같은 목표들을 놓고 각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열린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거리모금활동과 직접 구상한 캠페인을 통해 목표 성취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2기 서포터즈 분들은 오는 8월 부터 인사동에서 거리모금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모여 고민하고 나누었던 마음들과 다짐들, 그리고 서포터즈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JTS 서포터즈 2기를 위해 여러분의 힘차고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류정훈·이주희 부부의 후원 이야기

함께하고 글쓰기
한국JTS 권민성 활동가

Q. 안녕하세요. 먼저 후원자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류정훈 : 저는 35살 류정훈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후원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JTS에서 국내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 저는 34살 이주희입니다. 저도 지금 남편이 말한 대로 일하면서 같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Q. 부부가 함께 자원봉사를 하는 건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JTS와 인연을 맺었는지 궁금합니다.

류정훈 : 정토회 법당에 법문을 들으러 처음 방문했을 때였어요. 처음이다 보니 해매다가 건물을 잘못 들어왔는데, 그게 JTS 건물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만난 최

기진 팀장님이 이것도 인연인데 여기서 자원봉사 하고 싶은 생각 있냐고 처음 본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JTS가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대뜸 그렇게 말씀하셔서 뒷걸음질 쳐서 나왔어요. 다시 돌아가서 법문을 들었는데, 그중에 복지특강이 있어요. 특강을 들으며 지구상에 절반 정도가 굶는다는 걸 처음 알았고, 우리가 남기는 음식 때문에 세계음식가격을 높여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JTS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주희 : 저는 작년(2012년)부터 JTS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행동으로 옮길 때 많은 생각을 하는 편이 아니에요. 남편한테 JTS라는 단체를 듣고서 가

끔 놀러오게 된 것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작년부터 나와서 활동했어요.

Q. 두 분은 나눔에 대해 특별한 철학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주희 : 저는 어떤 나눔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것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편이 아니거든요. 사실 나눔이 나의 기쁨이나 혹은 상대방의 기쁨이 될 수 있기에, 크게 힘들고 대단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류정훈 : 평소에 아내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려운 사람이나 나라가 있어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내는 "그렇게 따지는 것부터가 이상한 것 아니냐?"며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좋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을 해요.

Q. 조금 있으면 아이를 출산하실 예정인데, 혹시 나중에 아이와 함께 해외봉사에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류정훈 & 이주희 : 당연히 있어요. 첫 번째 이유로, 우리 식구만 배부르고 따뜻하게 생활하면 뭣뭣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의 의지가 좌절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아이를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비정상적인 교육열에 아이들이 희생 되는걸 많이 봐 왔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이들이 몸은 편안해도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해외에 나가서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몸은 좀 힘들더라도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학원이나 값비싼 사교육보다 훨씬 값진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후원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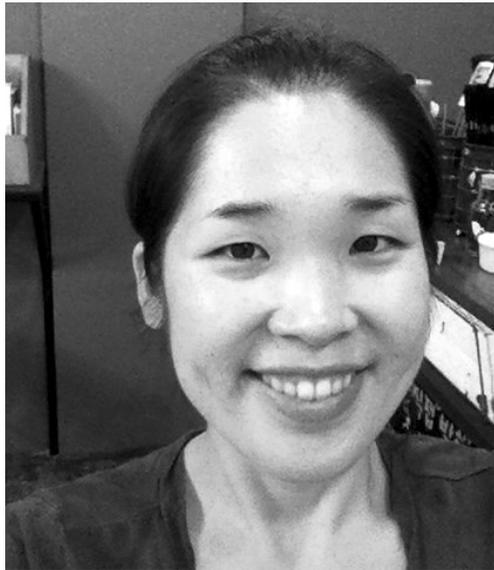
류정훈 & 이주희 : 후원을 하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후원하시는 분들께 드릴 말씀은, "위대하신 분들이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면, 원래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기적이예요. 세포는 몸 밖의 세균이나 이물질 등의 자기와는 이질적인 존재가 다가오면 배척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동물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누구의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닌데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생명체로서 갖고 있는 본능적인 것을 제쳐두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잖아요.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직장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나중에 좋은 기회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행은 파장으로 나아가서 남에게 공명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부를 하고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과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들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얼굴도 모르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구나. 나도 나중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야지."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있는 후로 약 한 주가 지난 8월 10일, 류정훈·이주희 부부의 아들 "아난"이가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아난"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을 닮아, 건강하고 행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신규 해외활동가를 소개합니다.

JTS 본부에서 활동을 해왔던 김희자, 배혜정 활동가가 오는 8월에 해외 사업장으로 파견됩니다. 두 분 모두 오랜 기간 JTS와 인연을 맺어 왔던 활동가들이네요, 해외 사업장에 파견 나가서도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행을 함께 해 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자원 활동을 한 곳은 평화재단 연구원이었고요. 지난 3월, 평화재단의 통일운동과는 또 다른, 다양한 활동을 해 보고자 JTS에 오게 되었습니다. JTS에서 활동 하면서 해외 현장에 가서 직접 현지인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습니다.

Q. 해외 사업장으로 파견가기 전 한국JTS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JTS에 온 초기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주최하는 연등회 행사에서 인도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행사에서 모은 기부금은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에 기부 되었습니다. 또한 3월부터 지금까지, 캄보디아 JTS 사업을 본부와 연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 활동가

Q. 어떤 계기로 JTS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2010년 가을, 정토회의 백일출가 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이후, 3년간 서울에서 상근 자원 활동을 통해 일과

Q. 해외 파견을 가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가게 될 곳은 필리핀 JTS입니다. 종교와 사상 때문에 정부와 주민들이 대치되어 있는 곳이지요. 현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JTS 활동가 분들과 함께 학교를 짓고, 학생과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며 민다나오 여러 마을에서 더 이상 분쟁과 대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Q. 이제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마음이신가요?

처음 해외 파견을 결정했을 때,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곤 걸 알았지만, 피상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졌고 텔레비전에서 보듯 재미있는 활동일 것이라곤 느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한국JTS에서 자원 활동에 대해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현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국JTS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단순히 재미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현지인의 삶과 저의 삶의 의미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JTS활동에 기대도 되고, 그 중요함을 느끼기에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Q. 아직 해외 파견 활동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마디 조언을 주신다면?

세상 모든 일이 다 가치 있는 일이지만,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한계로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도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해외 파견 활동을 하게 된다면, 해외의 열악한 지역 주민들의 자립과 행복, 평화를 이끌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해요!

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 때 배워야 합니다라는 설립 이념이 마음에 와 닿았고, 구호개발활동에 있어서 선교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목적사업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아서 JTS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2011년 한 해 동안 본부 사무실에서 활동을 했었고 올해는 해외사업장에 파견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Q. JTS 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기획홍보팀에서 홍보 관련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홍보부스 진행, 홍보물 제작, JTS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페이지 관리 등, 홍보 관련 일은 처음이라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정말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홍보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는데 일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홍보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였는데, 지금 JTS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배혜정 활동가

Q. 한국 JTS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2011년에 휴학을 하고 구호개발NGO에서 자원 활동을 하기 위해 NGO를 알아보다가 JTS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

Q. 해외봉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궁금해요.

앞으로 국제구호·개발 현장에서 계속 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고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대학원에 진학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전공을 정하려다보니 한정된 경험과 지식 내에서 아무리 고민해봤자 제자리걸음이 될 뿐이었고 현장 경험에 대한 갈망도 계속 있어 일단은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혀보기로 결정했어요.

Q. 해외봉사자를 파견하는 단체가 많은데, 왜 JTS를 통해 가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해외봉사를 가고 싶어서 다른 단체들을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이 개발 사업을 하면서 선교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순수하게 구호·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JTS를 택했습니다. JTS는 사업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목적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원 활동에 임하는 활동가들의 마음가짐도 굉장히 순수하고 진지하다고 느껴졌고요.

Q. 이제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마음이신가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나 결정들이 그 곳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최대한 많이 준비해가려고 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라오스 문화에 대한 이해, 개발 사업 실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편견이나 고집 없이 그 곳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

Q. 마지막으로 후원자 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끼고 또 아껴서 모아주시는 소중한 후원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후원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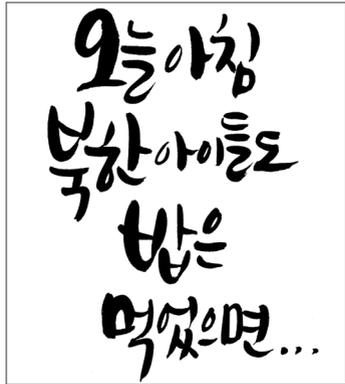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orea 국내소식



1. 캘리그래피 작가 이산 선생님의 재능기부

JTS 거리모금을 위한 앞치마 제작을 위해 캘리그래피 작가 이산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캘리그래피 문구를 재능기부 해주셨습니다. JTS의 설립취지와 활동내용을 들으시고 선뜻 재능기부에 응해주신 이산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모두에게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 JTS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자르하리 마을회관 지붕 올리기 (건축부)

마을회관에 지붕이 들어섰습니다. 자르하리 마을회관이 오랜 공사 끝에 지붕이 올라가고 내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거리상 제일 먼(걸어서 1시간) 이 마을에 우리 작업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쉬람단을 통하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완공까지 모두 힘내겠습니다.



4. 마을주민 300가구에 망고묘목과 과실수를 (마을개발)

정부 지원을 받아 마을에 묘목을 분배하였습니다. 동게스와리는 산지라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한데도, 나무가 많으면 아주 좋습니다. 집에 망고나, 구아바 나무가 있다면 열매를 바로 따먹을 수 있어서 큰 재산이 됩니다. 마을주민 300가구에 망고묘목과 과실수 5그루씩을 지급했습니다. 동게스와리에 망고가 주렁주렁 열려 주민들이 맛있는 과일을 즐기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5. 재봉반 졸업식 (마을개발)

재봉반 초급반이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반을 2개나 더 개설하여 4개월 동안 초급과정을 배웠고, 이제는 유치원 교복 치마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초급반 어머니들도 중급반과 고급반을 거쳐 고급 기술을 배워서, 수자타 아카데미의 전체 교복을 만들게 되는 그날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India 인도



1. 우비만 있으면 우기에도 끄떡없어요. (수자타 아카데미)

우기가 되면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교과서, 공책, 교복이 비에 다 젖어버리면 어찌지?' 학생들의 학용품을 지키고 비를 맞고 아프지 않도록 전교생과 교사들에게 우비를 지급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비닐을 잘라 바느질한 큰 고깔 모양의 판초(고가)를, 중등생과 교사들에게는 입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비옷을 나눠줬습니다.



2. 무더위에도 병원은 바쁘니다. (지바카 병원)

지바카 병원은 방학을 마치고 6월 10일 다시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름철 우기에 접어들면서 환자가 많이 몰립니다. 특히 눈병과 설사환자가 많고, 무더위로 인해 체력이 약해진 환자가 많습니다. 두르가푸르 마을에선 동시에 설사환자가 9명이나 발생하여 물 소독제를 지급하고 기본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개학이후 이동진료를 주 2회씩 나가고 있는데, 환자가 많아 하루에 100명이 넘게 오는 마을도 있습니다.



Philippine 필리핀



1. 7월 19일 '다리고 싶은 학교 만들기' 교사 모임

배명숙 활동가의 주관으로 '다리고 싶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위한 교사 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물록 시내 JTS 지원 8개 학교에서 교사 2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교사들과 JTS의 사업 비전을 공유하고, 학교 및 마을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배명숙, 김진진 활동가와 각 학교 교사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제안서를 작성하고, 9월 13일 프로젝트 제안서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2013년 신규 건축 학교 1박 2일 마을 잔치

2. 2013년 신규 건축 학교 1박 2일 마을 잔치

2013년 학교 건축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8월 8~9일 킬라올라오 마을, 8월 12~13일 아폴란 마을에 방문하여 학교 건축 과정을 기념하고 주민들과 화합을 도모하는 마을 잔치를 치렀습니다. 오는 8월 20일 킬라올라오 학교, 21일 아폴란 학교에서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JTS 지원 학교 문구류 지원

3. JTS 지원 학교 문구류 지원

2013년도 1차 교육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7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까지 다물록 지역 JTS 지원 학교를 방문하여 공책, 연필 등 기초 문구류를 지원하였습니다. 11개 학교 총 1,600여명의 학생들이 새 학용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알라원 다리 복구공사

4. 알라원 다리 복구공사

알라원 다리 복구공사가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태풍 파블로 때 부서진 다리 기둥 공사가 끝났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 케이블을 연결하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학교 준공식

5. 킬라올라오, 아폴란 마을 학교 준공식

2013년도 학교건축 프로젝트가 킬라올라오, 아폴란 2개 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월초 기초공사를 시작하여 두 달 여 만에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8월 20일에는 킬라올라오에서, 21일은 아폴란에서 준공식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바쁜 농사철이고, 무슬림 마을인 아폴란은 라마단까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마을의 미래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두 마을 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Cambodia 캄보디아



웡찬 마을 공사 현장

1. 타뱅크의 웡찬마을 공사 재시작

8월 1일, 웡찬마을의 학교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타뱅크의 웡찬마을은 강 건너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2012년부터 학교건축은 시작되었는데, 기술자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주민들의 사정으로 멈춰있던 공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주민들과 기술자, 그리고 JTS활동가들은 다시 시작된 공사를 기념하며 함께 식사를 하고 학교건축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따농마을 기공식

2. 언동미어군의 따농, 인마을 공사 시작

8월 2일, 언동미어의 따농 마을, 8월 5일은 언동미어의 인 마을 학교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마을은 약 2년 동안 학교건축에 대해서 JTS와 논의를 진행했는데, 주민들은 언제나 학교에 대한 열망과 주민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두 마을의 학교건축지원이 결정되고 8월 2일과 5일 각각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기공식에는 마을주민들과 부군수, 기술자, JTS 활동가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시는 한국외방선교회의 박서필 신부님께서도 참석하셔서 기공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Myanmar 미얀마



쨤차웅 다리 완공식

1. 쨤차웅, 빼에지, 탄더빈 다리 재건축(긴급복구) 완공식 진행

지난 6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다리 재건축 완공식을 진행했습니다. JTS의 법륜 이사장님과 박지나 대표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님과 짜웅공 타운십 시장 및 지방정부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석해 다리 완공을 축하했습니다. 완공된 다리는 콘크리트다리 한 량, 서스펜션 다리 두 량이며, 일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길과 마음을 이어주는 통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타공학교 완공식

2. 타공학교 재건축 완공식, 학교 교육 기자재 지원 진행

지난 7월 타공 초등학교 재건축 완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에와야디주 공무원과 짜웅공 교육청 직원들, 미얀마 방송사(MRTV4) 직원 및 마을 주민이 참석하여 학교 완공을 축하하였습니다. 타공 초등학교는 매년 우기 때마다 통학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에게 튼튼한 교실과 통학로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 기자재는 총 11개 학교에게 지급하였으며, 홍수로 인해 책걸상이 파손된 학교에 지역 기후를 고려한 튼튼한 책걸상을 지급하였습니다.

3. 싸퓨슈 학교 재건축 진행 사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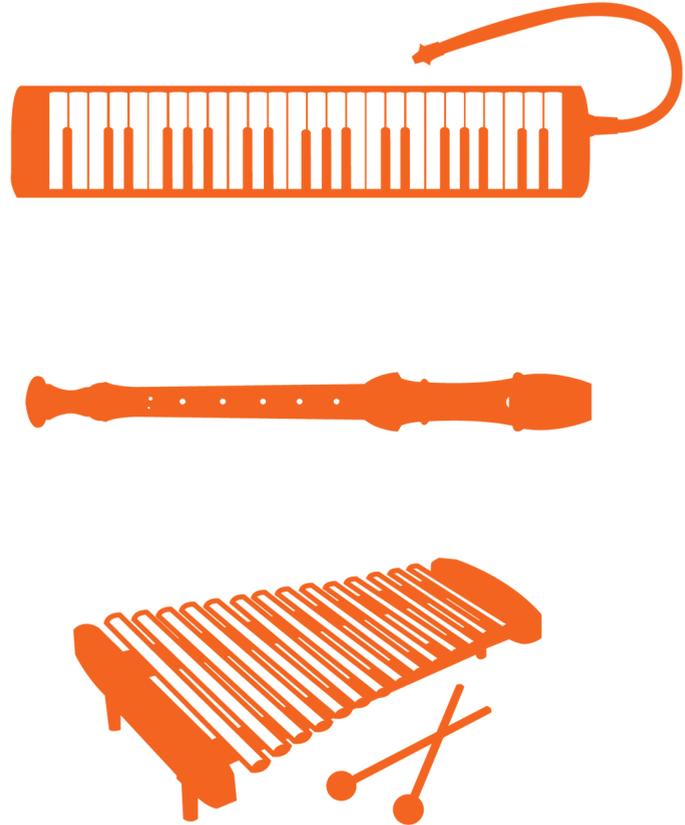
짜옹공에 위치한 싸퓨슈 마을에 학교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말 법륜 이사장님과 함께 사전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마을 주민들과 논의 후 학교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진행은 우기가 끝난 후 11월 경 진행될 예정입니다.

4. 건조지대(Dry Zone) 도로정비사업

미양 타운십의 도로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도로정비사업 위원회(Committee)가 조성되었으며, 미양 타운십 구청장 및 엔지니어와 사업진행 협조요청과 관련해 조율 중입니다. 조율이 마무리 되는대로 도로정비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인도	김정준, 김신아, 최동호, 주연우, 박성재, 김연희, 변유경, 이유진, 이은숙
필리핀	이원주, 이규초, 송지홍, 송현자, 배명숙, 이재곤, 김진진, 김희자
캄보디아	정철상, 김재령, 박병수, 문태훈
인도네시아	임희성, 오성근
스리랑카	이대원
라오스	배혜정



멜로디를 선물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JTS에 기증해주세요.
제3세계 어린이들의 꿈을 키웁니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번지 한국JTS

※ 악기의 특성상 깨끗이 세척해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흥천사신도회-인도지바	성정훈 30,000
카병원지원 1,000,000	안병석 50,000
	오상희 10,000
필 리 핀	유육재 10,000
	이서현 30,000
김경희 50,000	이영민 1,000,000
김동건 100,000	이인정 20,000
김민주 20,000	정현욱 10,000
김병주 20,000	한정숙 30,000
김산 10,000	황윤원 10,000
김승희 10,000	
김인숙 20,000	
박정아 50,000	
배순기 30,000	
수진스님-필리핀학교짓	
기 15,000,000	
안병석 50,000	
에이저투엠 20,000	
오상희 10,000	
웹브랜드 500,000	
유육재 10,000	
윤영실 250,000	
이상수 10,000	
이서현 30,000	
이영민 1,000,000	
이인정 20,000	
정민호 5,000	
하해영 10,000	
홍석운 10,000	
황성민 5,000	
황윤원 30,000	
국 내 사 업	
강규홍 30,000	
김경희 50,000	
김동건 100,000	
김민주 20,000	
김병주 20,000	
김산 10,000	
김승희 10,000	
김인숙 150,000	
나희원 50,000	
박별님 30,000	
박정아 50,000	

김산 10,000	김승희 20,000
김성현 이승은 결혼축하 50,000	김영범 31,000
김옥이 5,000	김영국 20,000
김은정 30,000	김정미 200,000
김진 30,000	나경원 50,000
나경주 50,000	남경현 30,000
남리라 300,000	남미애 50,000
목인병(김홍임) 50,000	박계선 100,000
박미경 100,000	박미혜 50,000
박별님 30,000	박수영 200,000
박준하 237,634	박종현 500,001
북한어린이돕기 800,000	
아버지 이근복영가 해탈 10,000	
기원 500,000	
아이(지메듀케이션) 150,000	
안재호 100,000	
양창호 200,000	
여승진 86,350	
이미경 50,000	
이서영 40,000	
이승덕 50,000	
이영희 100,000	
이윤희 16,140	
이인정 20,000	
이재호 300,000	
이주은 50,000	
이주형 20,000	
이진필 5,000	
이태권 30,000	
이호식 10,000	
정민주 200,000	

정민호 20,000	정민호 20,000
장백기 200,000	오승웅 30,000
조용석 20,000	오진수 40,000
최병화 69,000	이광준 10,000
최수인 100,000	이도홍 20,000
최순호 800,000	이서영 75,130
최정자 100,000	이수진 10,000
최지예 500,000	이인정 20,000
하지민 10,000	이정아 300,000
한승협 300,000	이주은 50,000
하대영 10,000	정민호 10,000
하수호 10,000	장백기 200,000
홍다연 500,000	정현욱 10,000
황성민 5,000	제목재 50,000
황윤원 63,000	조용석 20,000
황정의 30,000	하상현 1,000,000
	하지민 10,000
	황성민 5,000
	황유지 10,000
	황윤원생일축하금 62,000
	황정의 20,000

인도 모자보건	강병규 200,000
	권익숙 20,000
	권혁대 4,000
	김동건 300,000
	김봉주 500,000
	김산 10,000
	김선형 10,000
	김성남 180,000
	김승희 10,000
	김용기-일체무주구주고 100,000
	공경향 100,000
	권현숙 100,000
	김동건 300,000
	김민우 10,000
	김산 10,000
	김승희 10,000
	김영호 30,000
	김일명 63,160
	김재춘 100,000
	김태현 10,000
	나희원 50,000
	남리라 100,000
	남미애 50,000
	류호석 200,000
	박미혜 50,000
	박별님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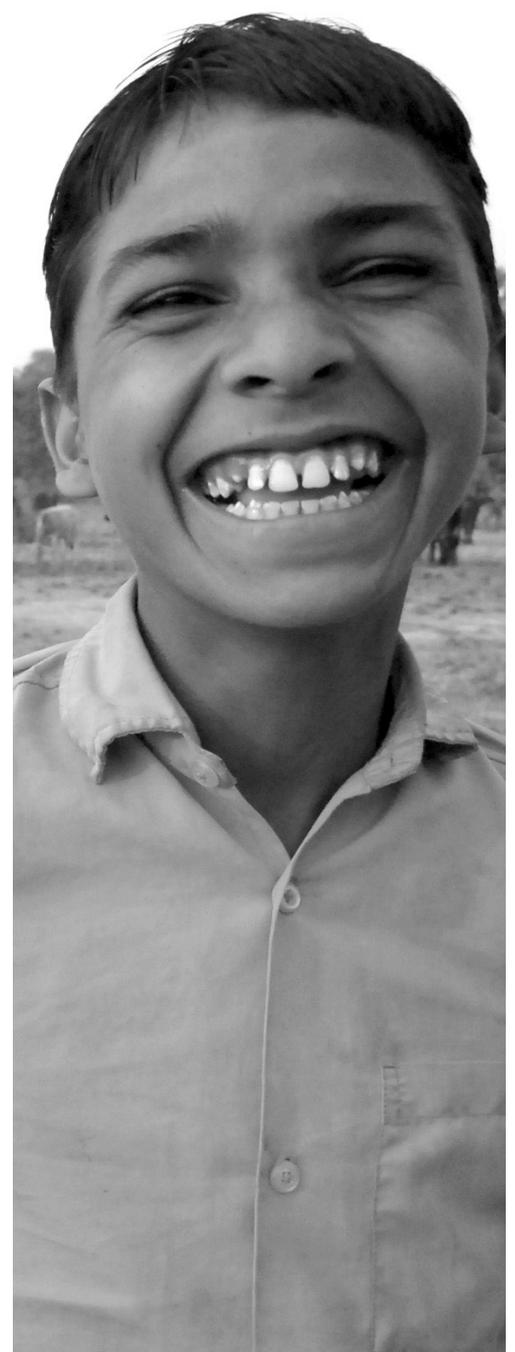
인도 및 제3세계	GS칼텍스주식회사 90,000
	강병규 200,000
	고성열 100,000
	공경향 100,000
	권현숙 100,000
	김동건 300,000
	김민우 10,000
	김산 10,000
	김승희 10,000
	김영호 30,000
	김일명 63,160
	김재춘 100,000
	김태현 10,000
	나희원 50,000
	남리라 100,000
	남미애 50,000
	류호석 200,000
	박미혜 50,000
	박별님 20,000

필 리 핀	김동건 300,000
	김산 10,000
	김승희 10,000
	김진 20,000
	김창대-제3세계 우물파기 1,000,000
	나희원 50,000
	남리라 100,000
	남명희 81,150
	박준하 237,634
	아버지 이근복영가 해탈 20,000

박종천 50,000	기원 200,000
박종현 300,000	양창호 100,000
박준하 237,634	오진수 40,000
배형섭 김항진 100,000	웹브랜드 30,000
성남대원초3-3 10,000	이광준 10,000
소진호 30,000	이인정 20,000
심연숙 86,150	정민호 10,000
여승은 79,500	장백기 200,000
오두세 64,000	조용석 20,000
오지항보살님 공덕으로 11,000	황윤원 52,000
보시합니다 60,000	황정의 20,000
오진수 60,000	
이수진 10,000	
이인정 20,000	
이정숙 70,000	
이주은 50,000	
이창현 125,000	
인도 박현숙 100,000	
정민호 10,000	
장백기 200,000	
제환욱 600,000	
조용석 20,000	
표경연 5,000	
하지민 10,000	
한지민 9,670,000	
황우선, 김소영 100,000	
황윤원 65,000	
황정의 20,000	

국 내 사 업	강병규 400,000
	김산 10,000
	나경원 50,000
	남리라 100,000
	이광준 10,000
	황윤원 10,000
JTS 전체사업	강규홍 20,000
	강진석 177,390
	고이정아 100,000
	곽진호 10,000
	권혁남 123,250
	김동건 200,000
	김동재 1,500,000
	김민서 300,000
	김성순 300,000
	김승희 10,000
	김연금 2,000,000
	김연지 100,000
	김용국 19,000
	김윤희 10,000
	김진규 100,000
	김춘생 100,000
	김현주 23,570
	김혜영 10,000
	김홍주 50,000
	남명희 81,150
	대로서우니 5,000,000
	문정재 29,070

밀기부김항진 40,000	정해숙 25,060
박관자 10,000	조용석 20,000
박미순 31,800	차정훈 100,000
박순환 23,000	차진희 200,000
박정자 5,000	채길순 300,000
박준하 237,638	최서은 37,000
박창일 10,000	최진연 52,490
백지연 20,000	한승호합격기원 50,000
서희숙 49,090	한춘화 100,000
설수정 100,000	홍현호 1,000,000
손영수 111,000	황성식 10,000,000
송우석 5,000	황원주 39,470
신다울 30,000	황정의 10,000
안성삼 100,000	
안재호 100,000	
양명숙 100,000	
오승웅 20,000	
오태섭 1,000,000	
우원석 1,500,000	
울산법당불전함모금 22,300	
유승자 100,000	
유정란 26,530	
유정자 31,960	
윤옥희 10,000	
이마트단체지원 3,058	
이미매 30,000	
이수진 10,000	
이수진-1 10,000	
이성민 500,000	
이은자 100,000	
이응노 37,200	
이인정 20,000	
이주은 50,000	
이현주 30,000	
이현희 100,000	
익명 300,000	
임윤진 10,000	
임창목 100,000	
정미란 1,000,000	
정백기 200,000	
정방언 100,000	
정인숙 500,000	
정재호 120,000	
정현욱 20,000	



해외JTS 후원금 (2013. 6. 01. ~ 2013. 7. 31.)

미국 JTS 6월	
Patty O Kim	\$ 20
Seungyong Park	
Yong S Suh	\$ 100
Bank adjustment	\$ 30
	\$ 90
Kyung J Kim	\$ 5
Namkee G & Bryan Y	
Choi	\$ 200
Patty Kim	\$ 20
Diane & Hyunsoo	
Park	\$ 100
Joe H Ha	\$ 90
김명호 & 유정희	
	\$ 1,000.00
김미경	\$ 100
김선화	\$ 100
김수현	\$ 100
김순미	\$ 50
김순미	\$ 50
김원태	\$ 30
김윤진	\$ 100
김재우 & 박민혜	\$ 60
노진연 & 김문석	\$ 60
도성희	\$ 17,500.00
마이클 양	\$ 31
박경배	\$ 80
박숙현	\$ 100
박태현	\$ 30
손정애	\$ 100
송호성	\$ 50
시애틀정교회	
	\$ 1,225.00
시애틀정교회	\$ 408
이귀염	\$ 100
이노숙	\$ 30
이동영	\$ 400
이명숙	\$ 500
임선희	\$ 30
최만성	\$ 20
케이 박	\$ 100
하해숙	\$ 40
한해진	\$ 200
미국 JTS 7월	
JBlanca	\$ 5
Gregory P & Suk Hui	
Backus	\$ 3,000.00
Kyung J Kim	\$ 5
박우주	\$ 100
박해영	\$ 200
박희목	\$ 100
배영	\$ 120
백은영	\$ 250
백은주 & 김요셉	\$ 60
백일주	\$ 60.00
변광립/정동심	
	\$ 100.00
송호성	\$ 50
송호성	\$ 50
시애틀정교회	\$ 9
신정애	\$ 313
양기석	\$ 100
양재원	\$ 120.00
워싱턴정교회	\$ 261
유정우	\$ 50
윤영수	\$ 300
이경택/김명례	
	\$ 6,000.00
이귀염	\$ 100
이남건	\$ 100.00
이남건	\$ 60
이동근	\$ 40
이동근	\$ 100
이동영	\$ 400
이상실/이원심	
	\$ 120.00
이승은	\$ 100
이유진	\$ 200
이재민	\$ 231.00
이종경	\$ 300
이종순/한성후	
	\$ 100.00
이지훈	\$ 280
이진아	\$ 60
이진아	\$ 60.00
이호진	\$ 80
임선희	\$ 30
장해주	\$ 60.00
전삼진	\$ 60
전은영	\$ 300
전정숙	\$ 120
정승연	\$ 90
정사연	\$ 90
정양희	\$ 120
박자희	\$ 120
조경은	\$ 120.00
조경은	\$ 60.00

나눔저금통 현황 (2013. 6. 01. ~ 2013. 7.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브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